

기독교 청소년이 학생 예배에 기대하는 것, '설교'보다 '찬양/친구'!

학생들의 여름방학과 함께 또다시 수련회 시즌이 돌아왔다. 방학을 맞이하여 학업을 보충하려는 학생들은 수련회에 참석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는 시기이기도 하다. 중고등학생의 개신교인 비율은 14%로 성인(17%)보다 낮으며,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10%에 불과하다.(넘버즈 224호) 여기에 학령인구 감소로 기독교 청소년의 수는 앞으로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이들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것은 곧 한국교회의 미래와 직결된다.

목회데이터연구소는 최근 교회 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신앙 의식을 살펴보고, 예배, 교제 등 전반적인 교회활동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였다.

주요 결과를 보면 기독교 청소년들의 하루 중 신앙생활에 할애하는 비중이 5분도 채 되지 않은 경우가 절반이나 되었으며, '학교에서 크리스천임을 드러내고 신앙 얘기를 하는 편'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절반에 못미치는 43%에 불과해 크리스천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는 신앙 수준을 나타냈다.

일러두기

-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.
-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,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%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%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.
-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(생산자)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.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, 원자료 출처(생산자)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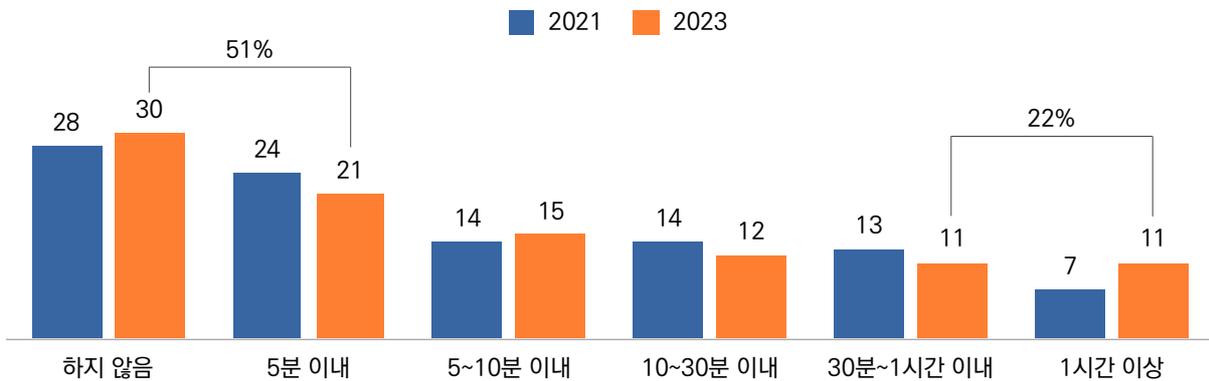
01

[신앙생활과 의식]

기독교 청소년 절반, 하루에 5분도 채 신앙생활 하지 않아

- 기독교 청소년의 하루 중 신앙생활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될까? 하루 중 신앙생활을 '하지 않음' 비율이 30%로 가장 많았고, '5분 이내' 21%, '5~10분 이내' 15% 등의 순이었다. '하지 않음'과 '5분 이내'를 합하면 51%로 절반 정도가 하루에 5분도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셈이다.
- 반면, 30분 이상 신앙생활 하는 청소년은 5명 중 1명 이상(22%)으로 나타났다.
- 2021년 코로나로 대면 예배 등에 제약이 컸던 시기와 비교해 보면 신앙생활에 투자하는 시간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. 다만 1시간 이상 신앙생활을 한다는 기독교 청소년은 소폭 상승해 코로나 이후 신앙생활에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.

[그림] 하루 중 신앙생활 정도 (교회 출석 중고생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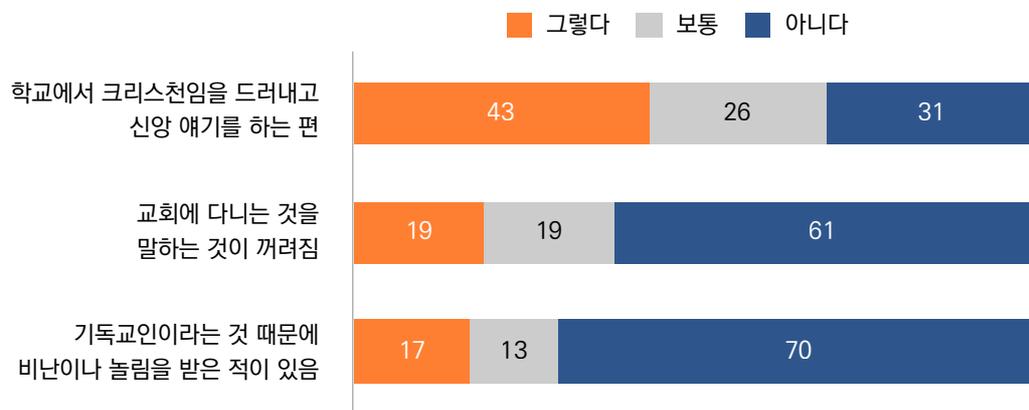


※출처 : 2021 : 안산제일교회/한국교회연구원(예장통합)/목회데이터연구소, '2021 크리스천 중고생의 신앙생활에 관한 조사연구', 2021.06.17. (교회 출석 중고생 500명, 온라인조사, 2021.04.08.-04.23.)
 2023 : 목회데이터연구소, '크리스천 중고생 신앙의식 조사 (한국교회 트렌드 2024)', 2023.06. (교회 출석 중고생 500명, 온라인 조사, 2023.05.12.-05.24.)

학교에서 크리스천임을 드러내는 기독교 청소년, 절반도 안 돼!

- 기독교 청소년은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교회에 다니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을까? 이에 대해 질문한 결과, '학교에서 크리스천임을 드러내고 신앙 얘기를 하는 편'이라는 응답이 43%로 절반에 못 미쳤고, '교회에 다니는 것을 말하는 것이 꺼려짐', '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비난이나 놀림을 받은 적이 있음' 비율이 각각 19%, 17%였다. 크리스천임을 드러내는 것에 떳떳하지 못하고, 심지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 친구들 사이에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그만큼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학교 문화권에서도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.

[그림] 학교에서의 크리스천 정체성* (교회 출석 중고생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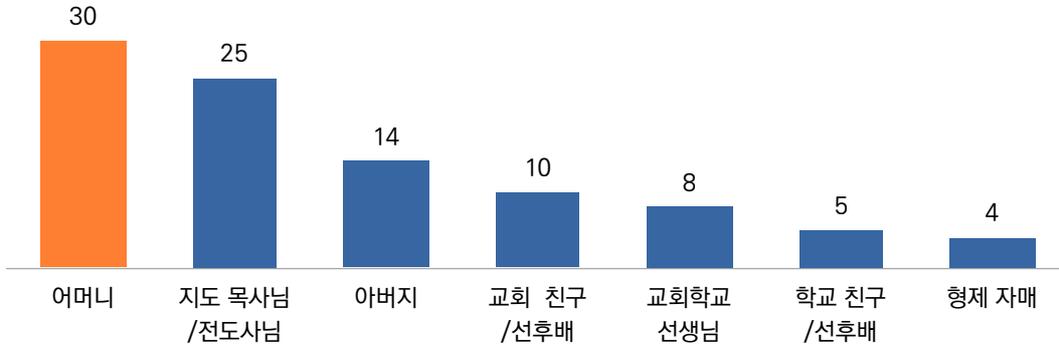


※출처 : 목회데이터연구소, '크리스천 중고생 신앙의식 조사', 2024.01. (교회 출석 중고생 500명, 온라인 조사, 2024.01.15.-01.11.)
 *5점 척도

교회에서 청소년 신앙의 가장 큰 영향자, 교회 목회자보다 어머니!

- 교회에서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구인지 묻은 결과, '어머니(30%)'를 가장 높게 꼽았고, 이어 '지도 목회자/사역자(25%)', '아버지(14%)' 등의 순이었다. 설문 문항에 '교회에서'라는 단서를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목회자보다 더 높게 나타났을 정도로 어머니의 영향력이 청소년 신앙에 중요함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.

[그림] 교회에서 신앙생활 영향자 (교회 출석 중고생, %)



※출처 : 목회데이터연구소, '크리스천 중고생 신앙의식 조사', 2024.01. (교회 출석 중고생 500명, 온라인 조사, 2024.01.15.-01.11.)
 Note) 기타 제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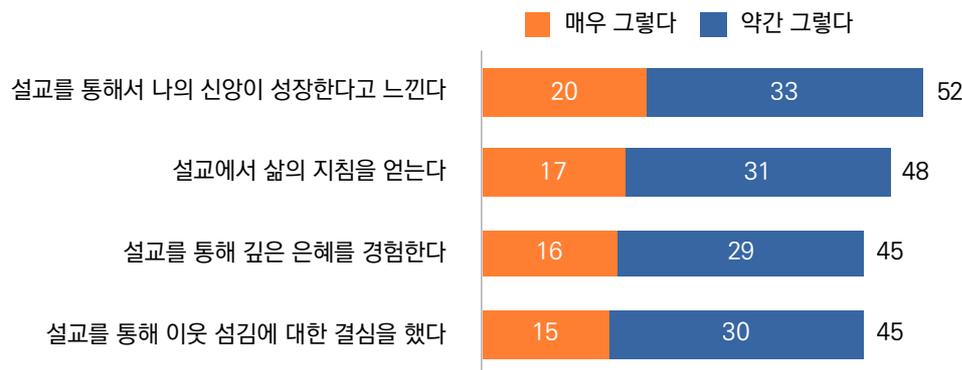
02

[예배와 설교 영향력]

기독교 청소년 절반, 설교 통해 신앙이 성장함을 경험!

- 학생들에게 설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? 몇 가지 진술문을 제시하고, 이에 대한 동의율을 확인해 본 결과, 기독교 청소년의 절반 정도가 설교를 통해서 '나의 신앙이 성장한다고 느끼고(52%)', '삶의 지침을 얻는다(48%)'고 응답했다. 또, 설교를 통해 '깊은 은혜를 경험하고', '이웃 섬김에 대한 결심을 했다'는 비율은 각각 45%로 나타났다.
- '매우 그렇다'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니 각 항목별 15~20% 정도로 나타났다. 10명 중 2명 가량의 학생이 설교를 통해 성장과 은혜를 강하게 경험하고 있었다.

[그림] 설교의 역할* (교회 출석 중고생, %)



※출처 : 목회데이터연구소, '크리스천 중고생 신앙의식 조사', 2024.01. (교회 출석 중고생 500명, 온라인 조사, 2024.01.15.-01.11.)

*5점 척도

Note) 합계가 맞지 않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.

기독교 청소년 10명 중 3명, 예배와 설교 통해 삶의 변화 다짐

- 예배와 설교를 통해 기독교 청소년들이 삶의 변화를 느낀 적이 있는지 '자주 있다' 비율로 확인해 보았다. '예배와 설교를 통해 변화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한 적이 있다(28%)', '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삶을 반성하고 나 자신을 성찰한 적이 있다(27%)'에 기독교 청소년 10명 중 3명 정도가 '자주 그렇다'고 응답했다.
- 한편 '낙심했을 때 설교를 통해 위로와 용기를 받은 적이 있다'는 21%, '예배에서 깨달은 내용을 주중에 기억하며 생활에서 실천하고자 노력한다'는 16%에 그쳤다.
- 대체로 설교가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는 학생 10명 중 2~3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.

[그림] 설교의 영향력 (교회 출석 중고생, '자주 있다' 비율*,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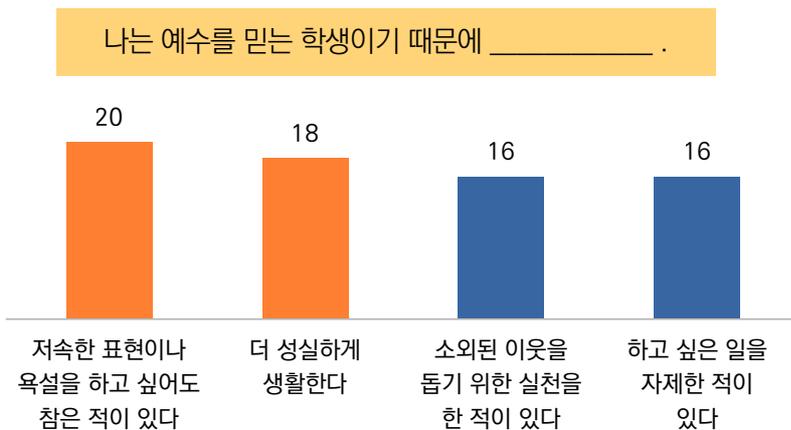
※출처: 목회데이터연구소, '기독교 청소년 신앙의식 조사', 2024.01. (교회 출석 중고생 500명, 온라인 조사, 2024.01.15.-01.11.)

*4점 척도

기독교 청소년 10명 중 2명 정도만 일상에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삶 실천

- 앞서 '예배에서 깨달은 내용을 생활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한다'에 '자주 그렇다'는 학생이 16%였는데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실천을 하는지 다양한 보기를 제시하고 '자주 있다' 비율을 확인해 보았다.
- '저속한 표현이나 욕설을 참는다' 20%, '더 성실하게 생활한다' 18% 등 10명 중 2명 정도는 일상생활에서도 적극적으로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실천하고 있었다.

[그림] 일상에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의 실천 (교회 출석 중고생, '자주 있다' 비율*, %)



※출처: 목회데이터연구소, '기독교 청소년 신앙의식 조사', 2024.01. (교회 출석 중고생 500명, 온라인 조사, 2024.01.15.-01.11.)

*5점 척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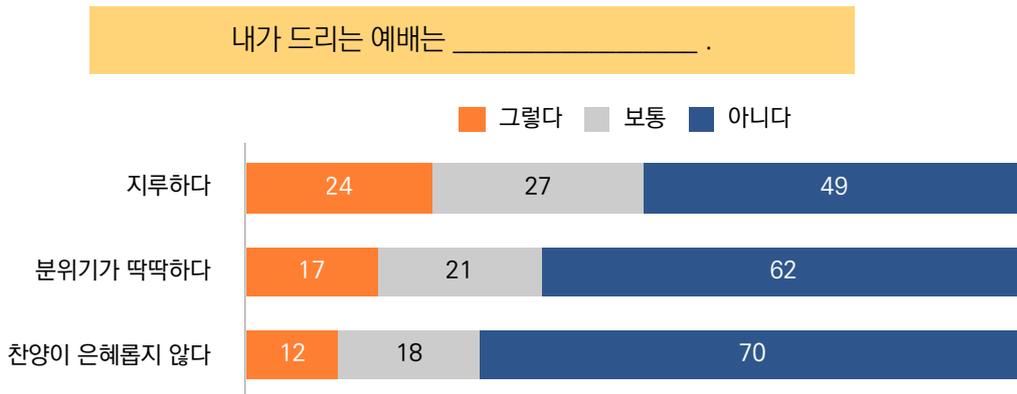
03

[예배와 교제]

학생 예배 '지루하다', 4명 중 1명꼴!

- 예배 분위기에 대한 기독교 청소년의 인식을 살펴본다. 교회 중고등부 예배가 '지루하지 않다'고 생각하는 학생은 절반(49%)에 불과했고, '보통' 27%, '지루하다' 24%로 기독교 청소년 4명 중 1명 정도는 예배를 지루하다고 느끼고 있었다.
- '예배 분위기가 딱딱하다'에는 17%가 '그렇다', 62%가 '아니다'라고 응답했고, '찬양이 은혜롭지 않다(12%)'보다는 '은혜롭다(70%)'는 의견이 훨씬 높았다. 전반적으로 예배에서 찬양과 예배 분위기는 나쁘지 않지만 '지루하다'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 점으로 보아 설교 또는 전반적인 예배 구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.

[그림] 학생 예배에 대한 인식* (교회 출석 중고생,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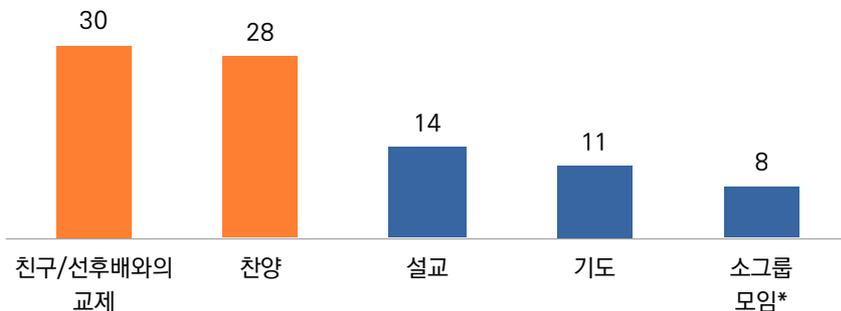
※출처 : 목회데이터연구소, '기독교 청소년 신앙의식 조사', 2024.01. (교회 출석 중고생 500명, 온라인 조사, 2024.01.15.-01.11.)

*5점 척도

기독교 청소년이 학생 예배에 기대하는 것, 설교보다 '찬양/친구'!

- 중고등부 예배 및 활동에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았다. '친구/선후배와의 교제(30%)', '찬양(28%)'이 가장 높았고, 다음으로 '설교(14%)', '기도(11%)' 등의 순이었다. 설교와 기도보다는 친구들과의 교제, 찬양을 훨씬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.

[그림] 중고등부 예배 및 활동에 기대하는 것 (중고등부 예배 드리는 중고생, 상위 5위,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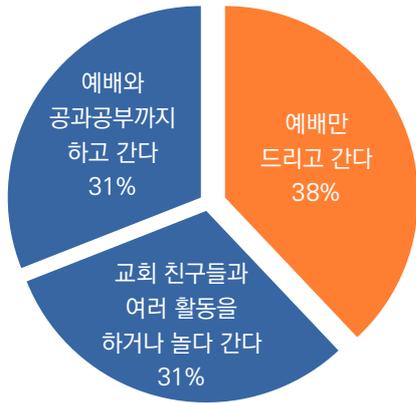
※출처 : 목회데이터연구소, '기독교 청소년 신앙의식 조사', 2024.01. (교회 출석 중고생 500명, 온라인 조사, 2024.01.15.-01.11.)

*공과공부 포함

학생 예배만 드리고 공과공부 하지 않고 가는 학생, 38%!

- 교회 중고등부 예배 참여하는 학생에게 교회에서 예배 후 어떤 활동을 하는지 물었다. 그 결과, '예배만 드리고 간다' 38%, '예배와 공과공부까지 하고 간다' 31%, '교회 친구들과 여러 활동을 하거나 놀다 간다' 31%로 10명 중 4명 가까이가 예배 후 아무 활동 없이 교회를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다.
- 앞서 중고등부 예배 및 활동에 기대하는 것으로 '친구들과의 교제'가 높았는데,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예배 외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적극적인 소그룹 활동 등을 전개할 필요가 있겠다.

[그림] 교회에서 중고등부 예배 후 활동 (교회 출석 중고생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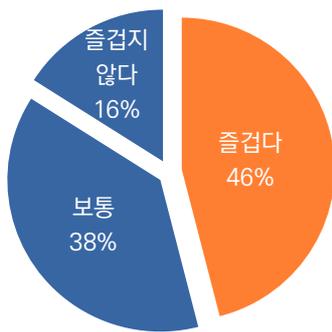


※출처 : 목회데이터연구소, '크리스천 중고생 신앙의식 조사', 2024.01. (교회 출석 중고생 500명, 온라인 조사, 2024.01.15.~01.11.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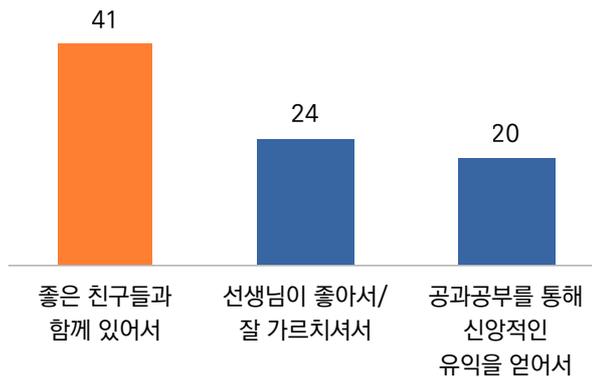
공과공부가 즐거운 이유, 신앙적 유익보다는 친구!

- 이번에는 공과공부를 하는 학생들에게 공과공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묻은 결과, 절반 가까이(46%)가 '즐겁다'고 응답했다. 공과공부가 즐거운 학생들에게 그 이유를 물으니 '좋은 친구들과 함께 있어서'가 41%로 가장 높았다. 이 시기는 '신앙 공부'보다 '친구'와 함께하는 즐거움이 더 큰 시기인 것 같다.

[그림] 공과공부의 즐거움 여부* (공과공부하는 중고생)



[그림] 공과공부가 즐거운 이유 (공과공부가 즐거운 중고생, 상위 3위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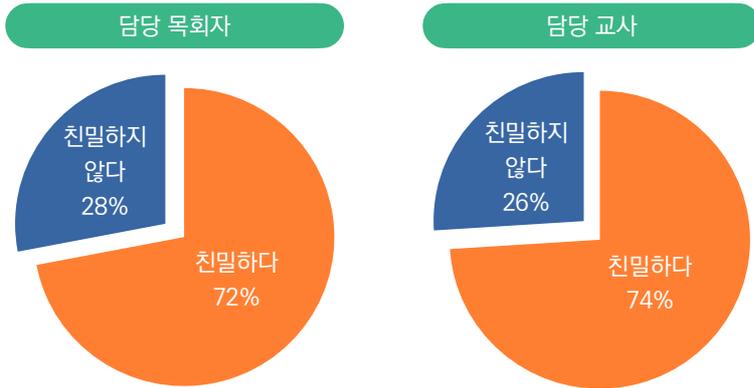


※출처 : 목회데이터연구소, '크리스천 중고생 신앙의식 조사 (한국교회 트렌드 2024)', 2023.06. (교회 출석 중고생 500명, 온라인 조사, 2023.05.12.~05.24.)
*5점 척도

기독교 청소년 10명 중 3명은 담당 목회자와 친밀하다고 생각하지 않아

-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는 학생들에게 교회 담당 목회자, 담당 교사와 각각 어느 정도 친밀한지를 물었다. 담당 목회자와 친밀한 경우는 72%, 담당 교사와 친밀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74%로 나타났다.
- 반대로 목회자와 친밀하지 않은 학생은 28%, 교사와 친밀하지 않은 학생은 26%로 나타났다. 대체로 10명 중 3명 가까이 되는데 중고등부 사역에서 이들과의 친밀감 형성을 중요한 과제로 설정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. 학생-목회자/교사 간 친밀감이 있어야 예배 참여에도 적극적일 수 있고, 학생들의 신앙 성장에도 더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.

[그림] 담당 목회자/교사와의 친밀도* (청소년 예배 드리는 중고생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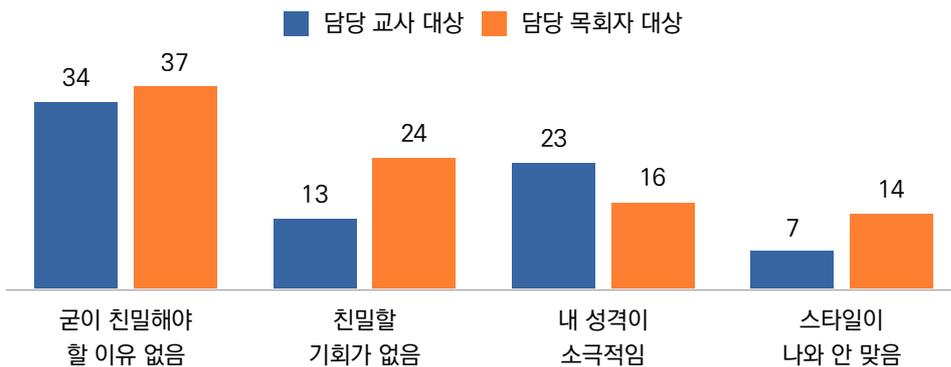


※출처 : 목회데이터연구소, '크리스천 중고생 신앙의식 조사 (한국교회 트렌드 2024)', 2023.06. (교회 출석 중고생 500명, 온라인 조사, 2023.05.12.~05.24.)
*4점 척도

담당 목회자/교사와 친밀하지 않은 이유, '굳이 친해야 할 이유 없어서'!

- 담당 목회자 또는 교사와 친밀하지 않다고 응답한 학생들에게 각각 그 이유를 물은 결과, 가장 큰 이유는 모두 '굳이 친밀해야 할 이유가 없어서'로 나타났다. 담당 목회자, 교사와 친밀하지도 않고 친밀할 필요성조차 못 느끼는 일부 학생들과 접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.

[그림] 담당 목회자/교사와 친밀하지 않은 이유 (담당 목회자/교사와 친밀하지 않은 중고생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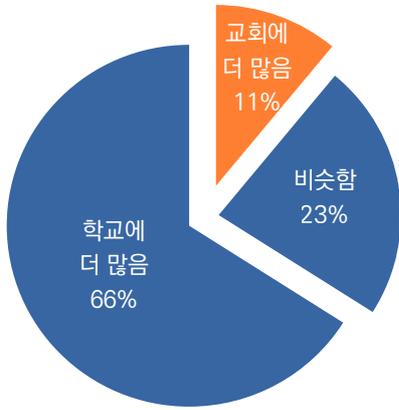


※출처 : 목회데이터연구소, '크리스천 중고생 신앙의식 조사 (한국교회 트렌드 2024)', 2023.06. (교회 출석 중고생 500명, 온라인 조사, 2023.05.12.~05.24.)

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교회 친구, 학교보다 훨씬 적어!

- 교회에서 '예배만 드리고 가는 학생'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교회 내 친한 친구가 없음을 방증하는 것이다. 실제 학생의 비밀이나 속에 있는 말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교회와 학교 가운데 어디에 더 있는지 묻은 결과, '교회(11%)' 보다는 '학교(66%)'에 훨씬 더 많았다.

[그림] 친한 친구 분포: 교회 vs 학교 (교회 출석 중고생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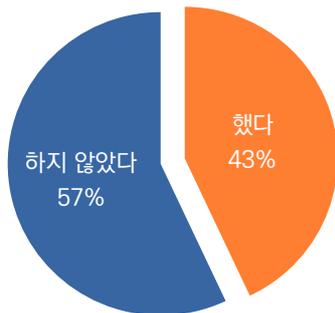


※출처: 목회데이터연구소, '크리스천 중고생 신앙의식 조사', 2024.01. (교회 출석 중고생 500명, 온라인 조사, 2024.01.15.-01.11.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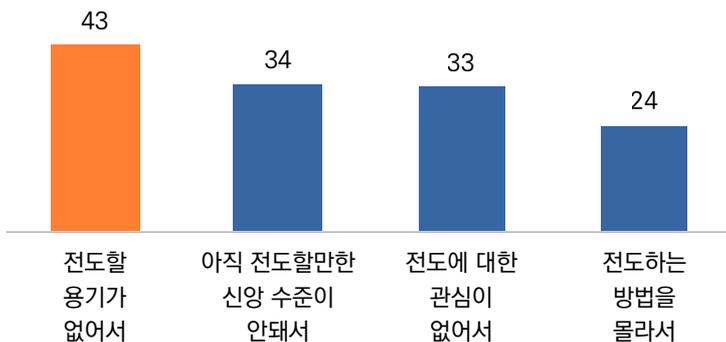
전도하지 않는 이유, '용기가 없어서'!

- 최근 1년간 전도를 시도한 경험(교회에 나온 것과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거나 교회에 나올 것을 권유하는 것을 의미)이 있는지를 묻은 결과, 10명 중 4명가량인 43%만 '했다'고 응답했고, '하지 않았다'는 비율이 57%였다. 이들에게 전도를 시도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더니 '전도할 용기가 없어서'가 43%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.

[그림] 최근 1년간 전도 시도 여부 (교회 출석 중고생)



[그림] 전도하지 않은 이유 (최근 1년간 전도 안 한 학생, 1+2순위, 상위 4위, %)



※출처: 목회데이터연구소, '크리스천 중고생 신앙의식 조사', 2024.01. (교회 출석 중고생 500명, 온라인 조사, 2024.01.15.-01.11.)

이번호 요약

1. 설교 통해 신앙 성장과 삶의 변화 이루는 학생, 10명 중 2~3명!

- ‘매우 그렇다’ 기준으로 ‘설교 통해 신앙이 성장한다’ 20%, ‘설교 통해 변화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한 적 있다’ 28%, ‘설교에서 깨달은 내용 중 생활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한다’ 16%로 설교를 통해 청소년들의 신앙이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는 대체로 10명 중 2-3명 정도이다.

2. 기독 청소년이 중고등부에 기대하는 것, ‘예배’보다 ‘찬양/친구’!

- 중고등부 예배가 ‘지루하지 않다’고 느끼는 학생은 49%, ‘공과공부가 즐겁다’는 학생은 46%로 모두 절반에 못 미쳤다.
- 중고등부 예배와 활동에 기대하는 것으로 ‘친구와의 교제(30%)’와 ‘찬양(28%)’이 ‘설교(14%)’보다 훨씬 더 높았다.

함께 보면 좋은 자료

*아래 제목을 누르면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.

- ▶ [영상] 밌 제너레이션 (주경훈 목사, 대한민국 목회 컨퍼런스 X 한국교회 트렌드 2024)
- ▶ [기사] 새벽 3시 자는 청소년에 아침예배?...교회로 이끌려면 ‘이렇게’ (국민일보)
- ▶ [기사] “앞으로 6년, 교회학교와 청소년 사역의 골든타임” (기독일보)

관련 성경 구절

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. 너는 범사에 그에게 복종하라 그리하면 너희 길을 지도하시리라. (잠언 3:5~6)

목회 적용점

이번 조사에서 발견할 수 있는 기독 청소년의 교회생활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‘재미’와 ‘친구’이다. 기독 청소년이 기대하는 것이 예배 요소보다 ‘친구와의 교제’라는 점은 교회가 충족해주기 어려운 재미를 채워줄 수 있는 열쇠이다. 기독 청소년 10명 중 3명 정도가 예배 후 남아서 교회 친구들과 놀다 간다. 교회는 이러한 교회 친화적인 학생들이 중심인 모임을 만들고 이들이 친교를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. 학교에서만 친한 친구 한두 명만 교회에 존재한다면 그 학생은 교회에 애착을 갖고,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. 청소년을 위한 사역이 Top down 방식이 아닌 청소년에 의한 사역이 될 때 개교회만의 청소년 문화가 만들어질 것이며, 교회학교 부흥의 씨앗이 될 것이다.

한편으로, 설교가 기독 청소년의 신앙을 키우거나 삶의 변화에 별 영향을 못 미치고 있는데, 청소년들이 설교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청소년의 구체적인 삶의 정황을 터치하고 전달 방법에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. 청소년 사역은 무엇보다 목회자의 헌신과 열정이 결정적이다.